



소외계층 위한 판소리 공연 19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 행사에 참여한 소외계층 등 300명이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북구청 주최로 열렸다.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검바우다리·달맞이육교를 아십니까?

광주시 공공시설물 33곳 이색 명칭 지역 내 랜드마크·인지도 높이기

'검바우다리, 달맞이육교, 구암샨고, 장라교를 아십니까?' 광주시가 운남지구와 수완지구, 남구 노대동 등의 신설 교량이나 지하차도 등 공공시설물 33곳에 붙인 명칭이 이채롭다. 시는 이들 공공시설물이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능도 하게 되는 만큼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광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광주시의회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름을 정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과거 마을이나 하천의 이름을 인용한 교량들이다. 남구 노대동의 검바우다리와 검바우아랫다리는 구암마을과 노대마을 사이의 들녘 이름을 따. 같은 동의 달맞이육교는 인근 송화마을단지의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경 수렴, 광주시 지명위원회 심의, 광주시의회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름을 정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과거 마을이나 하천의 이름을 인용한 교량들이다. 남구 노대동의 검바우다리와 검바우아랫다리는 구암마을과 노대마을 사이의 들녘 이름을 따. 같은 동의 달맞이육교는 인근 송화마을단지의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보도 육교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달맞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진솔교는 그 위치가 골짜기(진골)에서 송(松=솔)마을로 접어드는 곳이라는 의미로, 구암샨교는 인근의 구암마을과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샨'을, 노호교는 노대동과 인근의 호수를 조합해 명칭을 정했다. 동구 운림동의 운곡교와 성촌교는 마을 이름을, 동적교는 증심사천에 합류되는 동산천의 옛 이름을 사용했다. 마을을 잇는 다리는 각 마을 이름에서 한 자씩 골라 붙였다. 광산구 수완지구의 성장교는 성덕마을과

장자마을에서, 장라교는 장자울 마을과 느라터 마을 이름에서 명칭을 만들었다. 광로 7호선~운남지구 간 개설된 연장 445m의 교량과 북구 지아동의 연장 416m의 교량은 각각 지방의 연장 128m 교량으로 각각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에 지역 정서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고유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후텁지근 열대야 잠못드는 밤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지난 17~20일까지 25도, 26.1도, 25.7도, 25.7도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도 지난 17일 완도와 장흥, 영암, 함평, 화순 등 5개 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으며, 18일에는 10개 군에서, 19일에는 12개 시·군에서, 20일에는 7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을 따라 무더고 습한 남서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날씨가 흐려 야간에 복사 냉각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여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대야도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연평균 열대야 발생일 수는 광주 8.8일, 목포 10.6일, 여수 8.9일이었다. /김흥호기자 khh@

오늘 날씨: 해돋이 5시 33분, 해질 19시 44분, 달맞이 04시 04분, 달질 19시 07분. 장대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온 뒤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광주: 흐리고 비 23/28°C, 목포: 흐리고 비 23/26°C, 여수: 흐리고 비 24/27°C, 완도: 흐리고 비 24/28°C, 구례: 흐리고 비 25/29°C, 예남: 흐리고 비 25/28°C, 장흥: 흐리고 비 25/28°C, 고흥: 흐리고 비 24/28°C, 순천: 흐리고 비 25/28°C, 영광: 흐리고 비 23/28°C, 진도: 흐리고 비 25/28°C, 전주: 흐리고 비 23/28°C, 남원: 흐리고 비 23/28°C, 옥산도: 흐리고 비 22/24°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605-1114 / 대학문의: 605-1115

'미궁' 고흥 살인범 8년만에 검거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차동언)이 8년 전 고흥에서 발생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치밀한 재수사에 의해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순천지청은 20일 무고한 6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박모(6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고흥군 점암면 A(여·65)씨의 집에 침입, 스카프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에 유기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1975년에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1년 출소했으며, A씨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늦게나마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

화재보험금 더 받으려다...

부풀린 피해액 들통... 한 푼 못받고 수사 대상 전락. 광주 총장로 건물주 이 불에 타자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씨는 보험금은 커녕 되레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화재원인을 방화로 추정해 테다 윤씨가 매출 감소로 수익원의 빛을 진 점과 2002년 이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방화피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후 윤씨는 화재 당시 건물 안에 딸이 있었던 정황과 불을 지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

민사배심원 전국 첫 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사배심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지자체와 개인간에 발생한 손해배상사건을 배심원 조정을 통해 풀어나 화제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최인규 지원장은 20일 강진군의 도시계획 도로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원고인 김씨와 피고측인 강진군간 합의로 제시한 조정안 대로 판결했다. 법원은 "강진군은 원고인 김씨에게 건물에 대한 하자보상금 1천500만원 원과 무단점용한 8m의 땅값 600만원 등 총 2천100만원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조정안

모두투이 무안출발 백두산 전세기. 무안 ↔ 연길 직항 7월 25일 ~ 8월 22일 총 9회 한정상품. 7월 28일 백두산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8월 22일. 백두산 전세기 지정여행사: 파워투어여행사 TEL: 031-385-3355 FAX: 031-385-3357